

## 기독교 상담에서 다루지는 정서와 도덕의 관계성

곽 은 진\*

### 국문초록

도덕성은 인간이 실재하는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규범으로 상황에 대한 분별과 판단이 요구되는 것이다. 현실의 상황을 파악하고 인식하는 것, 즉 현실 지각은 자기 인식에 기초한다. 자기 인식은 지각력에 기초하며 지각은 정서 영역으로 순간적 감각 반응에 영향을 받는다. 신체를 통해 느껴지는 정서적 민감함은 상황에 대한 지각력을 촉진하여 상황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 분별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분별력은 지혜의 영역이며 올바른 판단을 이루는 동기부여의 핵심적 힘이다.

도덕성에 있어 정서가 필요한 이유는 도덕적 행위에 따른 도덕 판단과 지각의 중요성과 관련되어 있다. 도덕적으로 상황을 분별하고 판단할 때, 자신과 타인의 정서와 발생 가능한 행위의 관계성에 민감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 정서는 적절한 도덕적 자각에 이르도록 돕고 도덕적 인식론에 영향을 미친다. 이 과정에 정서는 부분적으로 도덕 인식론의 주제를 구성함으로써 정서적 반응을 무시하거나 간과하면 중요한 결정적 관점을 놓치게 된다.

기독교 상담적 관점에서 정서의 거룩성과 도덕성은 성경에서 하나님 성품의 열매이자 절대 명령이다. 하나님의 정서는 그의 거룩함과 도덕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도덕성을 향한 정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핵심에 놓인 영역이다. 이들은 상호 연관된 순환적 배경을 가지고 작용하고 있으며 궁극적 선과 도덕성은 정서적 지각과 그 반응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도덕적 가치와 실현에 따른 정서 지각과 인식의 수반은 기독교 관점에서 도덕성 회복에 정서 회복과 치유의 필요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중심단어** : 기독교 상담, 정서와 도덕성, 정서 지각과 인식, 도덕적 판단, 관계

• 논문 투고일: 2014년 4월 20일

• 논문 수정일: 2014년 5월 7일

• 게재 확정일: 2014년 5월 10일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 I. 여는 글

흔히들 현대 사회를 가치관의 혼란과 혼돈의 시대라고 일컫는다. 이는 인간 존재의 존엄성, 정체성을 포함한 도덕적 가치의 혼란을 의미하며 이들의 가치들이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말한다. 특히 기독교인에게 있어 그리스도의 전통적이고 신학적 윤리의 삶은 절대 명령이라는 신앙의 범주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삶으로 드러나는 도덕적 존재로서의 가치관의 혼란은 그 어느 시대보다 기독교인에게는 분석과 통찰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다.

정서적 상황 지각과 인식력은 도덕적 윤리 판단과 행위에 동기를 부여하는 실제적 힘이다. 삶의 가치와 윤리적 도덕성의 실현은 지적능력의 이성에 토대를 두고 이루어지는 기능적 판단 수행 능력이 아니다. 오히려 상황 속에서 지각되고 인식되는 내적 반응의 동기와 추론에 영향을 미치는 감각적 지각, 즉 도덕적 정서의 외부적 발현이다. 도덕적 행위는 정서적 상황 지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도덕성 회복에 정서적 개입이 요구되는 것이다.

가치관의 부재나 혼란은 삶의 갈등을 유발하고 판단의 어려움과 삶의 기준에 대한 혼란을 야기함으로써 많은 정서적 문제를 낳기 쉽다. 그러나 정작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 정서에 반응하는 방법에 미숙하다. 정서적 미숙은 내적 가치의 혼란으로 인해 경험되는 정서 통제 상태에 놓이게 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내적 동기의 힘을 얻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쉽다. 불행히도 현대인들은 과도한 이성주의와 과학의 발달로 인해 내면의 정서적 힘을 상실해 가도록 훈련되어 왔다. 그 결과 관계를 원하지만 진정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모르며, 행복을 원하지만 어떻게 행복을 찾고 느껴야 하는지 모르는 삶의 대처와 존재 양식에 모순을 낳았다. 이는 기독교인에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원

하지만 실제로 친밀감을 경험하지 못하는 엄청난 결과를 낳은 것과 같은 현상으로 도덕적이고 싶으나 도덕적이어야 하는 당위적 동기를 부여받지 못하는 것이다.

도덕적 행위는 상황 인식력과 관련되어 있다. 매 순간 상황 가운데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행동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건강한 정서적 민감함은 현실 상황 인식력을 높이고, 상황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분별은 상황 조절력과 통제력을 통해 적극적 삶의 대처 능력으로 지혜로운 선택을 가능하게 만든다. 분별과 지혜를 통한 선택은 하나님께서 선택적 행위에 동기를 부여하며 궁극적 선을 이루는 통로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의 판단과 행위적 수반은 내적 정서 반응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정서와 도덕성의 관계성을 기술하면서 옳고 그름의 도덕적 판단과 행위에 있어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정서적 반응과 인식 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궁극적 선을 이루기 위한 정서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정서적으로 미숙한 자는 정서 반응에 미숙하여 미숙한 행위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 목적을 위해 기독교 상담적 관점의 정서와 도덕을 기술해 보고, 도덕과 정서의 관련성을 통해 도덕의 가치와 회복을 위한 정서의 역할과 위치를 조명해보자 한다.

## II. 펴는 글

### 1. 기독교 상담과 정서

#### 1) 정서의 개념 이해

사전적 의미로 볼 때, 정서를 지칭하는 *émotion*이라는 단어는 프랑스어인 *émotion*과 *émouvoir*에서 나온 것으로 라틴어 *emovere*에서 파생하

였다. 이는 밖으로, 바깥쪽으로라는 의미의 라틴어 e-(out)와 움직, 동작, 활동의 뜻을 가지고 있는 movere(move)의 합성어로 정서와 관련된 개념인 동기(motivation) 역시 움직임을 나타내는 movere에서 나왔다. 즉 라틴어에서 유래한 영어 emotion은 밖으로(out) 움직이다(to move)라는 의미를 갖는다. 웹스터 사전에는 “정서란 어떤 강한 느낌으로 마음이나 영혼을 움직이는 것이자 즐겁거나 고통스러운 것으로 어느 특정한 원인이나 신체의 감각에 의해 드러나거나 파생된 마음의 방해 또는 동요”라고 기술하고 있다.<sup>1)</sup> 정서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으로 하여금 신체적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행동의 동기적 힘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정서의 어원적 이해 부분은 본질적으로 모든 정서는 행동하려는 충동으로 삶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진화를 통해 인간 안에 주입된 순간적 계획이며, e-movere하려는, 즉 행동하려는 경향성이 정서에 내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sup>2)</sup> 행동하려는 충동적 정서 반응은 인간이 이성적으로 인간의 행동을 통제하려는 것과 함께 정서와 행동의 밀접한 관련성에 대해 강조한다.

이러한 강조는 정서가 인간 내면의 속성과 기능들이 내부적 혹 외부적 사건에 반응하면서 일어나는 결과물로, 인간으로 하여금 인지적, 행동적으로 반응하도록 하는 힘이라 할 수 있다.

정서는 충동적 행동을 통해 목표를 지향하게 함으로써 행동을 조직화하고, 삶을 유지,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적 신호로 기능한다. 인지보다는 훨씬 생물학적으로 오래된 적응적이고 빠른 행위체계이자 생존을 위해 고안된 체계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정서는 기억과 사고에 영향을 미쳐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

1) “emotion,” (<http://www.websters-online-dictionary.net/definitions/emotion>.) 2014년 4월 15일 검색.

2) Daniel Goleman, *Emotional Intelligence*, 한창호 역, 『감성 지능』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2008), 43.

다. 이때 정서는 상황적 의미를 자동적으로 평가하면서 발생하기 때문에 인간이 추구하는 관심사에 상황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평가함으로써 이면에 있는 욕구와 목표를 알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므로 정서는 기본적으로 생존을 위한 신호 체계로써 상호 작용에 대한 지속적 정보를 주고받는 적응적 기능을 수행하는 의사소통이다.<sup>3)</sup> 정서는 모두 한 개인이 현실 속에서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영역으로, 정리 하면, 정서는 개인의 내적 세계와 외적 세계의 지각을 연결하는 신호의 자각 기능인 것이다. 즉 정서는 현실 지각이라 할 수 있다.<sup>4)</sup>

정서의 주된 특징 중 한 가지는 정서적 능력과 기능이 얼마나 현실 지각력과 인식력에 영향을 미치느냐와 관련되어 있다. 이 질문은 본 논문의 주제인 도덕적 판단에 도덕적 지각과 인식 즉 정서적 반응이 영향을 미치는가? 와 관련되어 있다. 현실은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는 시공간으로 인간은 여기서 매순간 선택을 요구 받는다. 현실지각력은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지각력으로, 기독교인에게 현실에 대한 적절한 행위적 충동은 도덕적 존재로서의 삶의 양식을 요구한다. 이는 참 도덕의 실체이신 하나님과의 또 다른 만남의 표현이다. 도덕성의 실현은 도덕적 지각과 인지를 통해 하나님과의 궁극적인 만남과 소통, 즉 살아있음을 경험하고, 참자기와 궁극적 자기 실존의 알아차림의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정서는 나의 실존과의 만남이자 소통, 즉 살아있음을 지각하고 현실 속에서 이를 느끼게 하는 것이다. 이 정서의 상태가 도덕적 실존으로 자각되고 도덕적 행위로 이끄는 힘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3) Leslie S. Greenberg & Sandra C. Paivio, *Working with Emotions in Psychotherapy* (New York: The Guilford Press, 1997), 13-22.

4) 곽은진, “정서치유가 영적 성숙에 미치는 영향”(박사학위 논문,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대학원, 2013), 21.

## 2) 정서와 성경

예수 전도단 상담학교 멜 한나는 성경적 정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첫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 되었다. 둘째, 정서는 인간을 하나님과 좋은 것들에게는 더 가까이 가게하고, 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셋째, 인간의 정서는 타락으로 역용되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악에게는 더 가까이 가게 인간을 움직이는 강력한 유혹의 도구가 되어버렸다. 넷째, 예수님은 인간의 정서가 그 본래의 목적으로 회복되기 원하신다.”<sup>5)</sup> 즉 정서는 창조와 타락 그리고 구원의 구속사 안에 있는 회복되고 치유되어야 할 영역이다.

하나님 형상 안에 있는 창조의 정서는 하나님의 성스런 본성이자 인간 본성 중 하나로 소속감과 존재감, 삶의 의미, 나아가 정체성 자각이라는 정서적 반응을 갖는다. 그리고 하나님, 타인, 그리고 자기 자신과 지속적 관계를 맺고 친밀감으로 관계 안에 거하도록 기능한다. 이것은 현실 인식 능력으로 내부 세계와 외부 세계에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정서적 관계능력을 의미한다. 이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외부의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듯(창 1:28) 내부의 정서를 다스릴 권세도 주셨음을 포함한다. 창조의 성경적 정서는 하나님과 인간관계 상태를 기쁨하는 영적 통로로 하나님이 인간 안에 부여하신 자신의 속성이다. 그러나 창조의 정서는 인간의 타락과 함께 왜곡되고 변질된 채로 창조의 명령에서 벗어나 오히려 정서의 다스림을 받는 상태로 오늘날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Aiden W. Tozer는 죄가 인류에게 가져온 가장 큰 죄악 중 하나는 인간의 정상적인 정서를 타락시킨 것이라고 말한다. 타락한 인간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들을 즐기고 사랑해서는 안되는 것들에 애착을 느끼면서 죄악의 쾌락에 빠져간다는 것이다. 결국 정서적 타락으로 인한 쾌락은 인간이 인생의 진정한 창조의 즐거움을 느낄 줄 아는 능력을 상

5) 멜 한나, 『감정, 그 은혜의 선물 세미나』 (서울: 두란노, 2008), 17-21.

실한 증거가 되었다.<sup>6)</sup> 사단은 창조의 정서를 타락의 통로로 사용하여 쾌락으로 전락 시켜 사용하는 것이다.

타락이 준 정서적 측면의 가장 파괴적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인한 소속감 상실과 존재감 혼란이다. 정서적 반응을 통한 하나님과의 소통 기능이 상실되어, 불순종의 대가로 인한 두려움<sup>7)</sup>과 대상 부재의 불안으로 정체성의 혼란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오늘날 정신 병리라 부르는 정신병과 같은 정서적 고통을 야기한 것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인간은 소속감이 상실되고 부조화 가운데 창조의 모든 완벽한 상황들이 무너지면서 자존감의 상실과 통제력 상실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는 정서적으로 불안, 불안정, 죄책감, 수치심, 우울, 무기력감 등의 정서적 고통에 다다르게 이끌었다.<sup>8)</sup> 결국 타락은 인간이 정서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정서의 통제 아래 놓이게 만들었다.<sup>9)</sup>

창조와 타락의 맥락에서 보여지는 정서는 인간의 존재와 이 존재의 인식, 즉 느낌이 실제 삶에 미치는 영향과 실체를 보게 한다. 실존하는 인간의 상태인 정서를 타락된 인간의 속성이 현실 속에서 온전히 자각하고 느낌으로 인식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즉 사탄 역시 인간이 자신의 실존 상태를 경험하는 정서의 통로를 사용하여 상황을 잘못 자각하도록 이끌어간다. 그리고 이를 잘못 인식케 함으로써 자신의 왜곡된 느낌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만든다. 이는 정서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왜곡된 인식으로 인해 잘못 사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나님을 지각하는 창조의 통로가 사탄의 통제를 받는 타락의 통로

6) Aiden W. Tozer, *How to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이용복 역, 『이것이 성령님이다』 (서울: 규장, 2005), 140-141.

7) 김준수, 『마음의 치유』 (서울: 디모데, 2006), 28-29.

8) William T. Kirwan, *Biblical Concepts for Christian Counseling*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1984), 81-82.

9) 김준수, 『마음의 치유』, 29.

로 사용되는 것이다.<sup>10)</sup> 도덕적 행위의 실현이 정서와 관련되어 있다고 할 경우, 정서적 무감각과 타락은 도덕적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게 된다. 도덕적 행위는 상황과 관련되어 있고 정서는 상황에 대한 의미 부여와 판단의 대처 능력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정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가?

구약에서 다루어지는 정서는 창조의 하나님은 그의 말씀 안에서 열정과 정서를 가지고 인간과 대화하시며 이 대화 안에서 인간으로 하여금 선하게 반응하도록 고안하셨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성경은 정서에 관하여 말하고 있고, 성경 말씀은 인간의 정서를 통해 내적 정서로 다가온다. 성경 자체는 정서 문학으로, 정서적 표현으로 가득 차 있고 인간의 이성과 대화할 뿐 아니라 정서적으로 공감하고 반응하도록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구약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선지자들의 마음에 감동을 통해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예를 들어, 이사야 65장 2절의 경우, 사용하는 언어들에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고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되어있다. 하나님은 인간이 진리를 느끼기 원하시며, 이 상태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기 원하신다.<sup>11)</sup> 하나님은 인간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소통하고, 느끼고 지각하는 가운데 내적으로 반응하기 원하신 것이다. 즉 인간의 정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소통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구약에서 보여지는 주요 정서 중 하나는 ‘의로운(righteous)’으로, 구약의 “의로운”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근거한 정서라 할 수 있다. 믿음에 의한 역사적 사실과 하나님 성품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시편에서 시편 기자가 드리는 기도의 모습을 보면, 철저하게 인지적 패턴을 드러내고 있다. 기도 속에 나타나는 정서와 감사의 표현은 철저히 하나님 성품에 국한되어 드러나고 찬양은 이 위대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결과

10) 콰온진, “정서치유가 영적 성숙에 미치는 영향”, 43.

11) Brian S. Bogman, *Feeling and Faith* (Wheaton, IL.: Crossway, 2009), 43-46.

로서 드러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를 찾고, 그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것으로 자신을 알리신다. 즉 구약의 ‘의로운’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율법에 기초한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히브리어의 ‘알다’에 해당하는 단어 ‘야다 (Yada)’는 민감한 감각, 정서적 매임, 공감, 친밀함, 성적 경험, 상호성, 책임감 등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이다.<sup>12)</sup> 즉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상대를 알아가는 신호인 것이다. 따라서 구약의 하나님은 마음으로 느끼고, 정서적으로 반응하며 알아가는 하나님인 것이다. 아는 것은 정서적 경험을 동반하고 이성적 인지는 정서적 감각을 간과하지 않는다. ‘의로운’은 이성적 옳고 그름에 근거한 정의감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이다. 따라서 흔히 ‘의로운’은 인지적 측면이 강조되나 정의감의 측면에서 보일 수 있는 정서적 특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신약에서 보여지는 정서를 보면, 신약에는 감정이라 부르는 정서적 상태에 대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언급한다. 우선 이 감정들은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이다. 기쁨과 겸손, 희망, 평안, 동정 등과 같은 정서를 가지는 것은 개인적 희생, 회심, 개종의 상징이라는 것이다. 순간에 표현되고 느껴지는 정서들은 타고난 기질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정서적 사건들은 명령되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바울은 감사하라고 명하고 있다(살전 5:18). 말로만 아니라 진심어린 태도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빌 4:4)고 명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감정들은 내적 본성 안에서 결정되고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은혜의 이야기와 성경적 개념들에 의해 감정은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독교 영성에 대한 규범적인 거룩한 감정들은 신학적 가르침에 토대를 두고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sup>13)</sup> 신약은 구약

12) Matthew A. Elliot, *Faithful Feeling* (Grand Rapids, MI.: Kregel Publications, 2006), 82.

13) Robert C. Roberts, *Spiritual Emotions*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Publishing Co., 2007), 9.

보다 더 정서적 관점을 주요 주제로 다루고 있으며 말씀 안에 명령되어 지켜짐으로 내적 변화를 이끄는 힘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 힘으로 생겨난 감정들이 거룩한 정서로, 삶의 열매이자 성령의 열매로 신약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신약 속에 나타난 이러한 정서적 특징은 우선 정서는 사람의 회개와 변화를 이끄는 힘으로 묘사되고 있다. 탕자의 이야기와(눅 15:11-19)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 속에서(갈 4:13-16) 정서는 실제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이 실제 삶의 결단과 행동을 결정짓는 큰 힘으로 작용함을 나타낸다. 또한 정서적 결핍과 무감각이 성령의 부재와 죄에 이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서적 무감각이 방탕으로 이끌어 더러운 욕심을 행하게 하며(엡 4:19-20), 사람들의 깨달음이 없음은 마음이 완고하여 돌이키지 못함이라고 성경은 말한다(요 12:39-40). 동시에 정서적 무감각과 굳어진 마음은 성령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나아가 성령을 훼방함으로써 소망을 잃게 되는 영원한 죄에 머무르게 됨을 말하고 있다(막 3:29-30). 성령의 훼방과 부재는 우리 안의 인도자를 잃은 것이며, 이는 구원자의 인도하심이 부재함 가운데 이루어지는 인간의 어두운 삶을 의미한다.<sup>14)</sup> 완고한 마음, 정서적 무감각, 정서 결핍은 성령 역사의 장애물로 궁극적 성숙이나 변화를 방해하는 핵심에 놓여있는 것이다. 정서는 인간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중심부에 작동하는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이다. 즉 정서적 무감각으로는 변화를 이루기 어렵다는 의미가 된다.

성경은 정서는 인간이 구원을 통해 온전함에 이르러야 하듯 정서 역시 창조의 목적으로 다시 회복되어야 할 영역임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악과는 가까이 하게 만드는 유혹의 도구로 전락한 타락의 정서 역시 하나님을 비롯한 그의 창조물들과 가까이 하고

14) 이병철 편저, 『주제별 성서 대전, 1권』(서울: 기독교 장안문화사, 1983), 111-112.

다스림의 명령 안에서 악으로부터 멀리하기 위해 계획된 창조의 정서로 회복되고 치유되어야 하는 것이다.<sup>15)</sup> 진정한 치유와 구원 역사의 실현은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인간 내면에서 느껴지고 이 사랑의 생명력이 인간 안에서 살아 숨 쉬듯 지각되어야 하는 것이다. 정서의 회복은 궁극적으로 정서의 통제권이 회복되는 것이며 구원의 행위적 성령의 열매는 이것들이 밖으로 *e-movere* 한 것이다.

### 3) 기독교 상담과 정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는 정서에 대한 올바른 대처와 반응, 그리고 조절과 통제 능력의 부족이다.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개인화와 개성화는 그 어느 시대보다 정서적 감성을 강조하는 시대이다. 그러나 정작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정서를 잘 다룰 줄 모른다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더구나 정서는 성경적 주제이며 깊은 인간에 대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 역시 이것은 나쁘고 신뢰할 수 없으며 억압해야 할 대상으로 또 너무나 강해서 인간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죄된 행위를 유발하는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기독교 내에서조차 이성을 승격시키고 정서적 태도나 반응을 폄하하는 분위기 등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정서는 성경적으로 이해되지 못하고 다룰 줄 모르게 되는 모순 속에 기독교인의 삶이 정서적으로 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16)</sup>

George E. Vaillant는 정서가 갖는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우리 삶의 변화에 필요한 것은 정서적 변화이다. 우리는 정서를 다루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삶의 문

15) 곽은진, “정서치유가 영적 성숙에 미치는 영향”, 45.

16) Bogman, *Feeling and Faith*, 21-24.

제는 정서 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며 모든 상담은 정서를 포함한다.”<sup>17)</sup>

기독교 상담에서 정서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내담자들은 자신의 정서 지각 반응에 미숙하다는 것이다. 내담자들은 정서를 인식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때때로 압도당하는 강한 정서 경험에 의해 상담실을 찾지만 이들은 명백한 정서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감정에 대해 잘 모르는 인지적, 정서적 경험 부재, 정서적 학습이나 양육의 부재, 정서 표현 부족이나 지나친 억압으로 정서지각과 인식의 어려움에 직면한다. 이들이 정서를 억압 하는 이유는 통제력 상실에 대한 두려움, 정서 경험을 언어로 표현하는데 따른 어려움, 상황에 대한 양가감정의 복잡함과 강도에 따른 혼란 등에 의한다.<sup>18)</sup> 내담자들이 강한 정서를 느끼지만 이를 표현하고 지각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모순 속에 내담자들은 정서적 고통으로 인해 실제 지각된 정서를 경험하거나 직면하기보다는 억압함으로 고통을 대처하려고 한다. 이것이 상담을 시작하려는 상담자에게 내담자에 대한 가장 기초적 정보이다. 상담은 이러한 내담자를 관찰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정서가 가지는 특징 중 하나로 내담자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둘째, 정서는 존재와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의 핵심에 놓여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담자가 상담실을 찾는 주된 이유는 관계의 문제에 따른 정서적 부적응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정서를 이해하고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내담자의 정서를 알면 중요한 삶의 문제, 핵심갈등, 그리고 그가 겪는 중요한 스트레스를 알게 된다. 내담자의 관점에서 보면 자신의 정서를 인식함으로 자신과 타인을 보는 통찰력

---

17) Robert Plutchik, *Emotions in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박권생 역, 『정서 심리학』 (서울: 학지사, 2003), 34.

18) Kathryn MacCluskie, *Acquiring Counseling Skills*, 홍창의 · 이숙자 · 정정화 · 정민 역, 『현대 상담기술』 (서울: 학지사, 2012), 217-219.

이 생기고 긴장이 풀어지며 목표를 세울 수 있게 된다.<sup>19)</sup> 현실 자각은 자신의 상태를 분별력 있게 보도록 돕기 때문이다. 관계 속에 숨어있는 정서적 갈등은 곧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양상과 관계의 근원적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영적 성숙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러므로 정서적 지각과 인식은 내담자와 상담자, 나아가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성경적 관점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정서를 주신 목적은 그 분 안에 머무는 방법과 상태를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경험케 하고자 하신 것이다. 또한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분과 연결되어 온전한 삶을 살도록 의미를 부여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친밀감을 그 증거로 경험케 하신다. 이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법을 경험케 하는 것이며, 이 안에서 서로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 경험은 하나님과 피조물로서 관계를 인식하고 매 순간 지각하면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함께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누리는 온전한 사랑을 누리고 경험하면서 관계 안에 머무르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이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정서를 통해 자신의 존재 상태를 지각하고 온전히 점검한 후 자신이 잘못되었거나 혹은 옳은 길에 있을 때나 늘 하나님과 소통해야 한다. 잘못된 길에 있을 경우 두려움이나 죄책감과 같은 정서의 지각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돌아오고 옳은 길은 기쁨과 감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친밀함과 경외함으로 머무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독교 상담에서 정서를 다루는 주된 이유이자 목적에서도 예외일 수 없는 것이다.<sup>20)</sup>

그렇다면 기독교 상담에서 정서와 관련된 상담자 역할은 무엇인가?

19) Plutchik, *Emotions in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233.

20) 곽은진, “정서치유가 영적 성숙에 미치는 영향”, 66-67.

정서가 갖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상담자는 반드시 상담 과정에서 정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드러내야 하며 내담자에게 정서가 어떻게 중요한지를 인지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sup>21)</sup> 이를 위해 그린버그는 정서코치로서의 상담자 역할을 강조한다. 정서에 대한 힌트와 훈련, 혹은 가르침을 통해 정서를 다룰 수 있는 전략과 능력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sup>22)</sup> 정서 코치로서 상담가는 자신의 감정 인식 능력이 있어야 하며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낼 때 이 순간을 치료적 친밀감과 연결을 제공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내담자의 순간순간 변하는 감정을 확인하고 수용하며 공감적으로 존중하며 이 감정을 느낌으로 상징화 하도록 돕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정서의 감각화를 돕는 것으로 내담자의 감정 세계로 들어감으로 이들의 감정을 다루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전략을 만들도록 안내하는 것이다.<sup>23)</sup> 따라서 상담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정서를 드러내고 내담자에게 그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인정하게 하는 것이다.<sup>24)</sup> 이 정서 인식 과정은 하나님을 만나는 영혼의 회복과정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것이다. 마음의 움직임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일어나며 이 과정은 영적 민감함과 연결되어 있다. 이 민감함은 내면 상태를 지각하고 흐름을 읽으며 이 상태의 감각이 말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민감한 능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 2. 기독교 상담과 도덕성

### 1) 도덕과 성경

기독교 윤리는 개인의 삶 전반에 적용되는 성령의 능력이며 예수의

21) Plutchik, *Emotions in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285.

22) Leslie S. Greenberg, *Emotion-Focused Therapy*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3), 55.

23) Greenberg, *Emotion-Focused Therapy*, 59-60.

24) Plutchik, *Emotions in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213.

도덕적 모범과 가르침에 관한 것이다. 기독교인에게 있어 도덕성은 예수님의 도덕성이자 순종적 의무로 궁극적 목적의 특징을 갖는다.<sup>25)</sup>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답과 관련된 윤리학은 기독교인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답을 제공하게 된다. 기독교 윤리는 하나님의 의지에 토대를 두고 하나님에 의한 절대성을 갖는다. 이는 하나님 속성에 근거한 도덕적 명령을 포함하며, 하나님 계시에 의해 이루어지는 규정된 의무론적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sup>26)</sup> 기독교인은 도덕적으로 타당한 맞는 행동이 무엇인지 기독교 신앙에 근거해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다,

윤리적 도덕성은 실제 상황가운데 이루어지는 행동으로 삶에 적용되고 드러남에 있어 개인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려는 단계를 넘어서 자신의 견해를 타인에게 정당화하거나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출발한다. 인간은 내가 왜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 지속적으로 묻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sup>27)</sup> 그렇다면 이 기준은 무엇인가?

신학적 윤리의 관점에 있어 겸손, 도덕성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관한 질문에 답을 제공하는 것은 성경이다. 성경은 매우 세부적인 것을 제공하고 도덕적 교훈에 관계된 지시서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경은 사례별 상황에 대한 도덕적 법의 입문서로서 사용되고, 무엇보다 우선시 되는 일련의 가치들, 이상, 그리고 원리들이 제공되는 교훈서로서 기능을 담당한다. 성경은 세부적 사건에 적용되기 위한 도덕적 비평을 세우는 교과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성경은 삶에 토대를 둔 도덕적 실례의 개략, 가르침, 그리고 기독교 윤리를 위한 도덕 안내서로서 그리스도의 힘을 제공하는데 설명적이다. 이는 성경이 도덕

25) Henlee H. Barnette, *Christian Ethics*, 최봉기 역, 『기독교 윤리』 (서울: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1999), 23-26.

26) Norman L. Geisler, *Christian Ethics: Options and Issues*, 위거찬 역, 『기독교 윤리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9-17.

27) Christopher Bennett, *What is The Thing Called Ethics?* 김민국 역, 『윤리란 무엇인가?』 (서울: 지와 사랑, 2013), 17.

적 지혜의 집대성이 됨을 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성경의 기능은 선한 도덕적 결정을 하는 방법론을 제공<sup>28)</sup>함으로써 구체적 지시와 안내, 궁극적 실천 방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규정지어지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성품인 도덕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궁극적 선이자 최고의 도덕적 모범을 통해 기독교인들에게 그 지침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의 습득은 도덕적 관점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성경의 한 예이다. 잠언서는 도덕적 가치에서 훈련을, 도덕적 특징 속에서 성장을, 삶의 도덕적 질서 속에서 행동 훈련을 강조한다. 목회적 대화에서 잠언 구절의 적용은 도덕적 교훈과 도덕적 질서에 대한 것으로 잠언서의 두드러진 특징은 도덕적 질서를 삶에서 가장 우위에 두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표현하기 위해 잠언에서 사용한 병렬적 모순들은 선한 행동으로부터 자연적으로 우리나라 오는 선한 의지의 관찰에 초점을 두고 이 행동들이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권선징악의 질서가 경험에 기초하여 인생을 통해 인내할 수 있는 당위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잠 28:23; 20:21; 28:20).<sup>29)</sup> 성경은 도덕성이 훈련을 통해 지속적 성장과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행함의 유익과 결과가 경험되면서 얻는 목적론적 당위성을 제공하고 있다.

안경승은 “지혜 문서의 지혜자들은 온전함, 의, 적합함에 중점을 두고 윤리적 내지 공동체의 질서를 강조하고 있다”고 말한다. 지혜자들은 의미 있는 경험을 강조하면서 어떤 행동이 선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고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지에 대한 도덕적 질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sup>30)</sup> 잠언에서 다루어지는 도덕적 질서는 지혜자에게 오는 긍정적 선

28) Ray S. Anderson, *Christians Who Counsel* (Grand Rapids, MI.: Zondervan, 1990), 216.

29) Donald Capps, *Biblical Approaches to Pastoral Counseling* (Eugene, OG.: Wipf & Stock Pub, 1981), 113-114.

30) 안경승, “구약의 지혜자를 통해 본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 한국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창간호 (2003): 36.

의 힘으로 실제적 지혜와 공동의 덕을 행하는데 관심을 두고 선한 행동의 치유적이며 질적인 힘임을 강조한다. 잠언 구절들의 이러한 성취들은 교훈적 도구로서 사물의 도덕적 질서 안에서 신뢰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 교훈의 강조는 총체적 삶을 통제하는 질서의 증거와 현실적 관점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sup>31)</sup>이며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도덕성을 향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여기서 분명히 할 것은 성경은 기독교 윤리의 도덕성은 본질적으로 율법의 범주를 넘어선 은혜 안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은혜가 인간과 윤리를 바로 세워주는 원동력이라고 말한다. 은혜가 없이는 인간의 약한 의지로 행위의 법들을 행할 수 없기에 은혜가 자유 의지의 능력이며, 진정한 도덕성은 이 은혜의 기초 위에 놓여 있음을 말한다.<sup>32)</sup> 성경의 모든 규범과 규칙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들이 인간을 통해 발현되는 모든 과정은 궁극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이다.

## 2) 기독교 상담과 도덕

상담은 언어를 사용한 고백이라는 방법론에서 시작한다. 자기 내면의 사고나 정서 혹은 행동적 측면을 자기 인식적 관점에서 상담자에게 고백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심리학의 고백과 종교에서 행해지는 고해성사와는 그 내용과 방법에서 다소의 차이가 존재한다. 종교적 고해성사는 죄나 오점, 그리고 부도덕한 죄에 초점을 두지만 상담에서의 고백은 무의식적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함으로써 문제를 의식화해서 벗어나는데 초점을 둔다. 예를 들어, 내담자가 가정폭력을 시인하면, 성직자는 이 행위의 부도덕성과 참회, 용서에 초점을 두지만 상담자는 내담자가 어린 시절에 학대당한 경험에서 오는 분노와 성적 역할의 오류,

31) Capps, *Biblical Approaches to Pastoral Counseling*, 112.

32) 문시영, 『아우구스티누스와 은혜의 윤리학』 (서울: 북 코리아, 2008), 28-30.

폭력을 통해 결혼을 통제하는 문제에 초점을 두게 된다. 성직자는 내담자가 당면한 도덕적 문제에 관심을 두고, 상담자는 내담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심리적 원인을 알아내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내담자를 도우려고 한다. 둘 다 행동의 변화에 초점을 두지만 수단은 다른 것이다. 고해성사는 도덕적 규율에 대한 위반과 그것에 대한 회개를 다루지만 일반 상담 접근은 도덕적으로 중립적이다.<sup>33)</sup>

이러한 측면은 단순한 차이점으로 보기에는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다. 종교적 고해성사와 상담이 갖는 고백의 목적과 수단의 차이는 결과적으로 원인 또한 다른 관점에서 보기 때문이다. 즉 성직자는 문제를 죄로, 상담자는 질환으로 결국 귀인하게 된다. 여기서 기독교 상담자가 갖는 특징적인 구별점이 생기게 된다. 기독교 상담자는 기독교 세계관에 기인하여 인간을 바라보고 문제를 진단한다. 기독교 세계관의 인간 이해는 죄로 인한 타락의 존재로 이는 인간의 영적 죽음과 질병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독교 상담자는 죄와 병 모두가 인간 행동에 포함되고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도덕적 면에서 언제나 중립을 취해서는 안된다. 즉 기독교 상담자는 일반 심리학자나 상담자와는 다르게 도덕적 문제를 다루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상담에 대한 신학적 입장과 인간 중심적 입장과의 중요한 차이는 내담자가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고자 할 때, 기독교 상담자가 그것을 다루는 방법에 달려 있다. 기독교 상담자는 죄와 질병 사이의 이분법적 논리에서가 아니라 일반심리학적 관점에서 도덕적 오류를 바라보도록 도전받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써 오는 치료의 힘을 촉진시키고 부각시켜야 한다.<sup>34)</sup> 이는 두 측면이 추구하는 동일한 긍정적 목적에 부합하는 통합을 요구한다고 할 것이다.

33) Mark R. McMinn, *Psychology, Theology, and Spirituality in Christian Counseling*, 채규만 역, 『심리학, 신학, 영성이 하나 된 기독교 상담학』 (서울: 두란노, 2001), 196.

34) McMinn, *Psychology, Theology, and Spirituality in Christian Counseling*, 198.

Anderson은 *Christians Who Counsel*에서 기독교 상담가로서의 역할로 도덕 주창자(moral advocate)의 역할을 강조한다. 아울러 상담에서의 치료적 개입은 불가피한 일종의 도덕적 침해라고 언급한다. 그 이유로 전문적 돌봄을 주는 자들은 전문화된 집단의 상담 기준에 부합하는 윤리적 규칙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며 또한 이들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도덕적 존재이기에 인간 삶의 도덕적 구조 속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앤더슨은 인간의 성장 목표가 도덕성과 영성에 관련되어 있다<sup>35)</sup>고 언급한다. 이는 상담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도덕에 관련된 기준과 규범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 것이며 이는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상담을 하면서 상담자가 자신의 문제에 대해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길 바란다. 이는 상담자가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자질과 역량 그리고 그만큼의 도덕적 수준을 갖춘 자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타락한 죄성을 가진 인간이 온전한 도덕성을 갖춘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지혜 역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발달하는 것이 아니듯 도덕성 역시 외부적 환경으로부터 부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기독교적 관점의 도덕은 하나님 성품 안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인간의 본성과 가치는 신학적 도덕에 기초하고, 이는 인간의 행동과 삶의 기초가 된다. 다시 말해, 인간의 도덕적 가치와 원리는 하나님에 의해 인간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도덕성을 의미한다는 것이다.<sup>36)</sup> 이는 기독교 상담자에게 도덕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요구하게 만든다. 기독교 상담자가 도덕성을 갖추고 이 도덕에 대해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며 나아가 도덕성은 상담의 현장에서 다루어져야 할 부분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상담 과정에서 이루어

35) Anderson, *Christians Who Counsel*, 214-215.

36) Anderson, *Christians Who Counsel*, 218.

지는 도덕성의 실현은 하나님의 성품이 기독교 상담자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며, 도덕성의 실존은 기독교 상담자와 하나님이 함께하며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기독교 상담에 있어 도덕성은 무엇을 말하는가? 잠언을 통한 도덕성을 강조한 캡스의 관점을 인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잠언 안에 놓인 도덕적 질서와 확신을 상담에 반영한다. 둘째, 잠언의 도덕적 관점은 도덕 발달과 특징 형성에 중요한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셋째, 잠언의 도덕적 관점은 도덕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도덕적 책임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sup>37)</sup> 캡스가 언급한 잠언의 세 가지 도덕적 측면을 상담에 적용하면, 상담 안에서 이루어지는 도덕성은 우선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도덕적 창조의 질서를 내담자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이 도덕적 질서는 잠언에서 경험되어지고 관찰되어진 하나님 약속의 신뢰이다. 즉 문제와 갈등 속에서도 의미를 찾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온전한 신앙을 구축하기 위한 기회로 바라보도록 이끄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그분의 성품을 경험하는 것이다. 둘째, 도덕성의 적용은 상담자로 하여금 도덕성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며 이는 도덕을 통한 내담자의 성장과 발전을 돕고 나아가 이를 위해 교육하고 인도하는 것이다. 이는 곧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며 소명과 하나님 백성에 대한 소망을 품는 것이다. 셋째, 이에 대해 기독교 상담자로서의 책임감과 함께 이것이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는 또 다른 기능과 역할임을 자각하도록 돕는 것이다. 기독교 상담은 하나님의 성품인 도덕적 기초위에서 진행시키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3. 기독교 상담에서 다뤄지는 정서와 도덕의 관계성

김준수는 “기독교 상담이란 기독교 신앙이 상담의 절대적 역할을 하

37) Capps, *Biblical Approaches to Pastoral Counseling*, 122-124.

는 상담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기독교 상담에는 신앙과 신학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sup>38)</sup> 기독교 상담에서 다루지는 인간은 신학의 대상이자 심리학의 대상이다. 인간은 전인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 다루지는 도덕성의 실제 대상은 인간이다. 하나님 성품의 도덕성이 인간을 통해 드러나는 과정에서 인간이 갖는 한계성과 특징들은 인간적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즉 하나님 형상의 확장적 개념에서 다루지는 인간의 욕구와 동기, 정서와 이성이 작용하는 방식, 자아의 본질, 인간 개념의 본질과 지성의가 작용하는 방식 등 도덕성이 드러나는 가운데 작용하는 인간의 내적 요소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도덕성에 있어 심리학적 인간이해가 요구되는 측면이다.

도덕성은 근본적으로 자신, 타인, 인간 존재의 복잡성에 관해 깊고 풍부한 이해와 통찰을 전제로 한다. 타인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들과 잘 살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총괄적인 목적을 형성하여 실현하는 능력이다.<sup>39)</sup> 도덕성이 관계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의미이다. 인간은 대상이 없다면 도덕적 가치관과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야 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누군가가 있기에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 도덕이라는 규범아래 놓이게 된다. 하나님 역시 인간과 함께 존재하기 위해 그분의 도덕성을 사용하시고 인간에게 자신의 도덕성을 명령하시는 것이다. 도덕은 “관계” 위에 놓여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관계는 정서적 기초를 배제하고 논의하기 어려운 주제임을 기술해 왔다.

논자는 앞 장에서 정서가 현실지각력과 관련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정서가 현실지각력과 관련되어있을 경우, 이를 느끼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

38) 김준수,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창간호(2003): 9.

39) Larry May, Marlyn Friedman, & Andy Clark, *Mind and Morals*, 송영민 역, 『마음과 도덕』(서울: 울력, 2013), 97.

은 현실 지각도 떨어지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인간 발달의 측면에서 인간의 근육이나 신경, 신체, 지적 능력 등은 구체적이고 조작적 기술들의 훈련으로 익숙하게 숙달되어 향상해 가지만 고도로 잘 숙달된 조작력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서적으로 유능한 능력을 가졌다고 보기에는 힘들다. 정서는 지적 능력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지적 능력은 현실 일부를 인식할 뿐 과학적이고 수학적 문제들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지적능력이 곧 자기의 모든 영역을(total self)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은 문제 해결능력을 가진 인간 자신의 일부 능력을 통합적으로 잘 기능하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쉽게 스스로 속게 만드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즉 기능적 수행 능력을 인간의 전적 능력으로 평가해 인간 성숙의 한 증거로 삼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 능력은 정서적 수준에서 작동하지 않기에 진리를 향한 열정으로 인간을 이끌지 않는다. 한편으로 지적 능력의 한계는 사회 과학적 측면에서 다루어지는 인간 기능에 국한되어 있을지 모른다. 좋은 행동에 대한 존경, 좋지 않은 행동에 대한 격분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불의나 자기중심적 행위에 정서적으로 반응하지 않음으로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가치는 단순히 인간의 주관적 반응이 아닌 현실 속에서 반응한 특징들로 불공평을 느끼는 것이 곧 불평등을 인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sup>40)</sup> 이는 율법주의 신앙에 대한 기독교 신앙과 도덕성, 그리고 정서의 관련성에 대해서 좋은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예로 용서받음을 지적으로는 알지만 정서적으로 이를 느끼는 것은 별개 일 수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교회 내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성경에 대한 인지적 우월성이 곧 내면의 신앙 성숙도를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옳고 그름의 판단이 곧 도덕적 행위를 의미하

---

40) Charles Davis, *Body as Spirit: The Nature of Religious Feeling* (London: Hodder & Stoughton, 1976), 1-3.

지 않는 것이다.

인간은 옳고 그름, 당위라는 의미에서 해야 할 옳은 것과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을 판단해 왔다. 그러나 이것들을 도덕적 감정과 동기로 느끼지는 못한다. 정서적 무감각이 도덕성에 무능을 초래하는지에 의문을 보일 수 있으나 해야 할 옳은 일과 해야 하는 것에 관한 판단을 낳는 인지 작용이 그러한 판단에 행동하려는 동기를 낳는지에 대해서 역시 우리는 확신할 수 없다. 이러한 논의는 하나는 인지적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정서적 측면이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동기에 무감각하다면 이러한 감정에 민감할 수 없을 것이며 그 역도 같기 때문이다.<sup>41)</sup> 인지가 곧 정서적 동기나 지각으로 이끌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각되지 않으면 인식 역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인식된 상황이 지각되지 않으면 판단이나 차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Hume은 인간의 마음이 서로의 열정, 정서, 의견을 비추는 거울로 공감 혹은 타인과 공감하는 성향, 자신과 다르거나 상반되더라도 의사소통을 통해 타인의 경향성과 정서를 받아들이는 성향이 도덕적 특성의 주요 근원이라고 주장했다.<sup>42)</sup> 자신을 다른 사람의 입장에 두는 것은 행동을 예측, 이해, 설명하는 인식론적 역할과 더불어 윤리적 평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는 도덕적 사고에서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절차라고 보는 것이다.<sup>43)</sup> 이러한 관점은 상담에서 공감 혹은 감정이입이라는 영역으로 불리는 부분이다. 감정이입은 자기 인식에 토대를 둔다. 즉 자신의 감정을 잘 지각하고 인식할수록 타인의 감정을 잘 읽을 수 있다. 모든 관계에는 감정 이입의 능력이 포함된다. 감정이입은 고통, 위협, 박탈의 처지에 놓인 잠재적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그들의 괴로움을 공유하면서 사람들이 그들을 돕도록 자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덕성의

41) May, Friedman, & Clark, *Mind and Morals*, 266-267.

42) May, Friedman, & Clark, *Mind and Morals*, 218.

43) May, Friedman, & Clark, *Mind and Morals*, 232.

뿌리를 이루고 있다.<sup>44)</sup> 성경의 이타주의적 성향은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한 감정이입에 의한 공감이며,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는 인간의 성숙한 한 영역임에는 틀림없다.

신약의 예수님은 마가에게 "...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막 12:31)고 명령하신다. 인간은 정서자체 안에 머물 때 정서를 변화시킬 수 없지만 감정 뒤에 놓여 있는 신념과 평가를 바꿈으로써 정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예를 몸소 보여주신다. 정서는 인간이 믿고 가치 있게 여기는 진리에 대해 말한다. 신약에서 믿는 자들에게 정서를 명령할 때는, 선한 감정에서 오는 이러한 신념과 가치를 가질 것을 권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신약의 주요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의 명령은 율법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수님은 이것이 율법의 도덕적 요구라고 말씀하시며 올바른 정서는 율법에 순종하는 핵심이라고 보신 것이다.<sup>45)</sup> 클라우드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하나님께서 관계 가운데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 존재의 기초가 관계에 기인한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왜 사랑이 가장 높은 윤리적 덕목이 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율법은 사랑의 청사진, 즉 기초가 된다. 율법은 사랑이 살아가는 구체적 방식이다.”<sup>46)</sup>

사랑의 하나님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아는 것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고 그의 아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듯이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과 그리고 교회와 관계를 맺으셨으며<sup>47)</sup> 이 관계는 율법을 통해 드러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

---

44) Daniel Goleman, *Emotional Intelligence*, 한창호 역, 『감성지능』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2008), 176, 190.

45) Elliot, *Faithful Feeling* 143.

46) Henry Cloud, *Changes that Heal: How to Understand Your Past to Ensure a Healthier*, 전병철 역, 『크리스찬을 위한 마음 코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2), 70.

47) Elliot, *Faithful Feeling* 160.

는 것이다. 따라서 정서에 대한 명령은 단순한 정서적인 태도나 감정 물입이 아니라 정서 이면에 있는 사고의 변화를 의미하며 정서 속에 담긴 평가와 가치, 그리고 의미체계에 대한 것으로 근본적 관계의 변화에 대한 명령이라고 할 수 있다. 신약에서의 정서에 대한 명령은 하나님 말씀의 체계와 가치를 포함하는 것이다.<sup>48)</sup> 율법적 도덕성의 완성은 관계 안에 규정되어지며 궁극적 선이란 관계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도덕은 타인에 대한 정서적 반응으로 사랑이라는 존재론적 반응을 통해 올바른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게 된다.

### III. 닫는 글

도덕성은 인간이 실재하는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규범으로 상황에 대한 분별과 판단이 요구되는 것이다. 현실의 상황을 파악하고 인식하는 것, 즉 현실 지각은 자기 인식에 기초한다. 자기 인식은 지각력에 기초하며 지각은 정서 영역으로 순간적 감각 반응에 영향을 받게 된다. 신체를 통해 느껴지는 정서적 민감은 상황에 대한 지각력을 촉진하여 상황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 분별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분별력은 지혜의 영역이며 올바른 판단을 이루는 동기를 부여하게 된다. 이러한 순환은 정서 발달과 도덕성 발달이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윤리적 문제는 정서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윤리 문제는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것이어서 타인의 생각이 틀렸거나 견해가 옳지 않다고 말하면, 당사자는 불쾌함을 지각한다. 동시에 윤리적 견해는 느낌과 감정에 연관되어 있어 올바른 견해를 지녀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데서 윤리적 필요성과 당위성이 시작

48) 곽은진, "정서 치유가 영적 성숙에 미치는 영향", 53.

된다.<sup>49)</sup> 도덕성이 타인의 존재와 관계 안에 존재하는 규범으로 관계와 상호성을 규정짓는 연결고리, 즉, 정서적 반응과 지각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흔히 사람들은 타인의 행위적 판단에 대해 불쾌감으로 반응하고 누군가의 무례함이나 비도덕적인 행위에 본능적인 부정적 정서를 경험한다. 이것이 학습된 것이든 본능적인 것이든 인간은 옳지 않다고 판단되는 일들에 부정적 정서를 수반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무의식적이거나 암묵적인 정서 태도는 도덕적 판단에 무의식적 영향을 미치고 결정권과 반응을 행사하도록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서적 반응과 태도가 실제 삶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내적 동기를 부여하고 도덕적 판단의 동기적 힘을 제공하게 된다는 것이다.

기독교 상담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변화이다. 상담은 건설적이고 성경적 행동과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끌어 준다. 즉 변화를 위한 촉진,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동기는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자극하고 행동의 방향과 선택을 가능케 하며 행동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내적 힘을 부여한다.<sup>50)</sup> 이 동기를 지각하고 인식하도록 만드는 신호는 정서이다. 내적 본능적 감각을 활용한 하나님의 신호 체계인 것이다. 인간이 동기를 통해 내적 변화를 이루고 지속적 행동 변화를 선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도덕성을 유지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근거라면 정서는 도덕적 행위에 동기를 부여하는 신호가 될 것이다.

도덕 판단에서 정서가 필요한 이유 중 하나는 도덕 판단과 지각의 중요성과 관련되어 있다. 도덕적으로 어떠한 상황을 정확히 서술할 때 자신과 타인의 정서와 가능한 행위 관계에 민감해야 한다. 적절한 도덕적 자각에 이르도록 돕는 정서는 도덕 인식론에 여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49) Bennett, *What is The Thing Called Ethics?* 12-13.

50) 김준수, "인간 동기의 심리학적 이론과 성경적 이해", 한국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8권(2012): 107.

정서는 부분적으로 도덕 인식론의 주제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정서가 도덕 인식론적 자원이라는 것이다. 정서적 반응을 무시하거나 간과하면 그 결과 흔히 중요한 결정적 관점을 놓치게 됨으로써 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예로 외부의 지배적 시각에 의해서만 지각할 것이다.<sup>51)</sup>

성경에서 정서적 거룩함과 도덕성은 하나님 성품의 열매이자 절대 명령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정서는 그의 거룩함과 도덕적 특징을 가지고 다루어지고 있으며 그 자신이 올바르고 의롭고 도덕적이었기에 그의 정서 역시 올바르고 의롭고 도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정서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기에 선하고 적합한 것이며, 이를 인간의 한 부분으로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sup>52)</sup> 성경적 정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성품으로 이끄는 힘이며, 거룩한 정서로의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기에 도덕적이고 거룩함을 요구한다. 이 의미는 건강하고 회복된 성경적 창조의 정서는 인간을 도덕적이고 거룩하게 함으로써 인간이 온전하도록 이끄는 힘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

51) May, Friedman, & Clark, 299-301.

52) Elliot, *Faithful Feeling*, 111.

【 참고문헌 】

- 곽은진. “정서치유가 영적 성숙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 논문,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대학원, 2013.
- 김준수. 『마음의 치유』, 서울: 디모데, 2006.
- 김준수.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창간호(2003): 8-29.
- 김준수. “인간 동기의 심리학적 이론과 성경적 이해”. 한국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8권(2012): 106-130.
- 안경승. “구약의 지혜자를 통해 본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 한국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창간호(2003): 30-50.
- 이병철 편저. 『주제별 성서 대전, 1권』. 서울: 기독 장안문화사, 1983.
- 문시영. 『아우구스티누스와 은혜의 윤리학』. 서울: 북코리아, 2008.
- 한나, 멜. 『감정, 그 은혜의 선물 세미나』. 서울: 두란노, 2008.
- 웹스터 사전. “emotion”, ([http://www.websters-online-dictionary.net/definitions/emotion.](http://www.websters-online-dictionary.net/definitions/emotion))
- Anderson, Ray S. *Christians Who Counsel*. Grand Rapids, MI.: Zondervan, 1990.
- Bennett, Christopher. *What is The Thing Called Ethics?* 김민국 역. 『윤리란 무엇인가?』. 서울: 지와 사랑, 2013.
- Barnette, Henlee H. *Christian Ethics*. 최봉기 역. 『기독교 윤리』. 서울: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1999.
- Bogman, Brian S. *Feeling and Faith*. Wheaton, IL.: Crossway, 2009.
- Capps, Donald. *Biblical Approaches to Pastoral Counseling*. Eugene, OG.: Wipf & Stock Pub, 1981.
- Cloud, Henry. *Changes that Heal: How to Understand Your Past to Ensure a Healthier*. 전병철 역. 『크리스찬을 위한 마음 코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2.
- Elliot, Matthew A. *Faithful Feeling*. Grand Rapids, MI.: Kregel Publications, 2006.
- Geisler, Norman L. *Christian Ethics: Options and Issues*. 위거찬 역. 『기독교

- 윤리』.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1999.
- Goleman, Daniel. *Emotional Intelligence*. 한창호 역. 『감성 지능』. 서울: 웅진 지식하우스, 2008.
- Greenberg, Leslie S. & Sander C. Paivio. *Working with Emotions in Psychotherapy*. New York: The Guilford Press, 1997.
- Greenberg, Leslie S. *Emotion-Focused Therapy*.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3.
- Kirwan, William T. *Biblical Concepts for Christian Counseling*.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1984.
- MacCluskie, Kathryn. *Acquiring Counseling Skills*. 홍창의 · 이숙자 · 정정화 · 정민 역. 『현대 상담기술』. 서울: 학지사, 2012.
- McMinn, Mark R. *Psychology, Theology, and Spirituality in Christian Counseling*. 채규만 역. 『심리학, 신학, 영성이 하나 된 기독교 상담학』. 서울: 두란노, 2001.
- May, Larry., Marlyn Friedman, & Andy Clark. *Mind and Morals*. 송영민 역. 『마음과 도덕』. 서울: 울력, 2013.
- Passer, Michael W. & Ronald E. Smith. *Psychology*. New York: McGraw-Hill High Education, 2008.
- Plutchik, Robert. *Emotions in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박권생 역. 『정서 심리학』. 서울: 학지사, 2003.
- Roberts, Robert C. *Spiritual Emotions*.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Publishing Co., 2007.
- Tozer, Aiden W. *How to be Filled With th Holy Spirit*. 이용복 역. 『이것이 성령님이다』. 서울: 규장, 2005.

【 Abstract 】

## Relationship Between Emotion and Morality in Christian Counseling

**Eun Jin Kwoag**

Asia United Theological University

One of the most important objectives of Christian counseling is the promotion of changes. Counseling is constructive, infusing the counselees with encouragement to adopt the Bible-oriented behavior and attitude while providing guidance. In other words, Christian counseling stimulates the changes and provides motivation to change the behavior and attitude. Motivation provides stimulation to make the ideas translated into actions, sets the direction for behavior, and enables the selection, and furthermore, infuses the internal power vital for sustaining specific behavior. Emotion is the signal that allows people to perceive and recognize such motivation. It is the signal system of God, using the internal instinctive senses. Emotion will be the signal assigning the motivation towards moral behavior, if the ground for maintaining the morality and sustaining the moral behavior is underpinned by the ability of humanity to achieve internal change and select sustainable behavioral changes based on motivation.

Morality is the norm applicable to the real world where the humanity exists, and requires the discernment and judgment of situation. The perception of reality, which means understating and recognizing the real world, is based on the bedrock of self-awareness. The self-awareness is buttressed by the perceptual ability, and the perception is affected by momentary sensory reaction in the emotional realm. The emotional sensitivity perceived through the body stimulates the perceptual ability, thereby affecting the circumstantial judgment, and ultimately works as discernment. The discernment belongs to the realm of wisdom and gives rise to the motivation for proper judgment. Such circulation implies that the emotional development and moral

development are interrelated while the ethical issues are related to emotion.

The emotion is necessarily involved in morality, given that the emotion is associated with the importance of morality judgment and moral judgment entailing from moral behavior. That is because one needs to be sensitive to the relationship between one's own or others' emotion and possible behaviors when discerning and determining the situation from moral perspective. Emotion facilitates proper moral self-awareness and influences moral epistemology. In this process, the emotion partially forms the subject matter of moral epistemology. Thus, if the emotional reaction is disregarded or overlooked, the important decisive perspective will be missed and the consequential confusion in judgment would lead to the distortion that would result in the perception of situation from the externally prevailing or unreasonable viewpoint.

The emotional holiness and morality which are manifested in the Bible represent the fruits of God's integrity and belong to the realm of absolute order. God's integrity has been considered based on His holiness and morality. His emotion also manifests itself as upright, righteous and moral because God is upright, righteous, and moral. In addition, the emotion is good and appropriate because it essentially belongs to God, and it has been made clear that the emotion was given as part of humanity. The biblical emotion is the source of power that leads people towards God's integrity and assigns motivation towards the holy emotion, and therefore requires morality and holiness. It implies that the healthy and restored emotion, which is based on biblical creation, makes humanity moral and holy, thus becoming the wholesome existence

The holiness and morality of emotion from the standpoint of Christian counseling embody the absolute order witnessed in the Bible, and represent the domain at the center of the relationship with God. The influence of emotion, which affects the moral inference and judgment, manifests itself in conjunction with the interrelated cyclical backgrounds. The ultimate good and morality are related to emotional perception and reaction.

**Key words:** Christian counseling, emotion and morality, emotional perception and recognition, moral judgment, relationship